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전국 최다

최근 6년간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특히 고령농업인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기계 교통사고는 2620건 발생에 440명이 사망하고 287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은 2011년 379건에서 2012년 407건,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에서 2015년 508건, 2016년은 443건으로 2011년 대비 16.9%가 증가했다.

전남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63%, 재해비율 3번째로 높아 “치사율 높은 사고 고령농업인에 취약”

다음으로 경북 480건, 경남 298건, 충남 277건, 경기 2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발생을 보면 2011년 45명에서 2016년 73명으로 62.2% 증가했다.

농업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최근 5년간 1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1%)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사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858건으로 전체 2620건의 사고 중 7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

양선 침범 257건, 교차로 통행방범 위반 1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620건의 사고 중 65세 이상 사고가 1650건으로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63%를 차지했다.

농촌진흥청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농업인 평균연령이 1990년 49.9세에서 2015년 59.1세로 늘어난 상황에서 농기계작동 미숙 등의 원인으로 노인인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고령농동부가 조사한 '업종별 산

업제해 발생대비 농업근로자 재해 비율'을 보면 2016년 농업근로자의 재해율은 공업 13.75%, 임업 1.54%에 이어 전체 10개 산업군 중 세 번째로 높은 0.90%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산업평균 재해율인 0.49%보다 약 1.8배 높은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60세에 이른 상황 속에서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가 고령농업인이 쉽게 아픔을 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라면서 "고령농업인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에 맞춘 농기계 안전수칙과 교육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차량5대 훔쳐 숙식 해결한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혐의(절도)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에 광주 북구 광주역사 주변에서 SUV 렌터카(4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광주와 충남 태안에서 키가 꽂혀있거나 보관돼 있던 차량 5대를 훔쳐 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박씨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바퀴 바퀴가 빠지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또 다른 차량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1년 6개월 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운동부 코치 여학생 성추행 혐의 직위해제

광주 모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여학생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운동부 여학생 A양이 코치 B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피해 내용을 자체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운동중에 A양의 몸을 만지거나 혼자 있는 집에 오게 한 뒤 안마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장애인 카드 훔쳐 보조금 인출한 2명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알고 지내던 장애인의 생활보조금을 훔친 A(20)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월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알게된 정신지체 장애인 C(26)씨의 체크카드를 훔쳐서 장애인 생활보조금 53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C씨의 부탁으로 체크카드에서 보조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했고, 술자리에서 체크카드를 훔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위조 서류로 햇살론 대출 일당적발

위조한 대출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정부 지원 햇살론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대부중개업자 A(39)씨 등 3명 사기 및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5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9월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와 아들에 흥기 휘두른 40대 검거

40대 남성이 헤어지지는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37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B(48·여)씨가 헤어지지는 요구를 하지 이에 격분해 흥기를 휘둘러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아들(20)을 2~3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들은 "A씨가 엄마를 찌르고 나도 공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모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홍 기자



수능 코앞, 빈틈없는 '열공'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31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종로학원에 서 시험생의 책상 주변에 참고서가 잔뜩 쌓여 있다.

부친 묘 개장(改葬) 관련 형제간 분쟁 추태

광주 중건 M건설사 회장 등 연루 의혹 커

광주에 소재한 중건건설회사 일가의 조모와 부친 묘 이장과 관련해 형제간 고소장이 접수돼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돼 지난 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M건설사의 창업주인 한 모씨의 조모와 부친의 묘가 개장된 건 지난 7월께. 애초 광주 소재 망월 묘역에 안치되어 온 아들 묘지는 관리인으로 셋째아들 한 모씨가 지정돼 있었으나 지정인의 행불을 이유로 둘째아들이 조모와 부친의 묘를 전남 곡성군 옥곡면 신산 묘역으로 이장한 것.

문제의 발단은 행불처리 된 것으로 알려진 셋째아들 한 모씨가 "불법적 행위로 인한 개장이었다"며 개

장 신청인 둘째형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개장 당시 망월묘지 관리사무소는 화순경찰서에서 발부된 지정관리인의 행불신청서를 원인으로 묘의 개장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한 모씨는 "정상적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화번호 한번 바꿔 본 사실이 없다"며 "둘째형이 불법으로 연고지도 아닌 화순경찰서에 행불처리를 해가며 묘의 이장을 추진했는지의 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의도적 개장이었음을 확신했다.

셋째 한 모씨는 지난 7월 말 화순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행불신고 확인 전화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행불 신고자가 둘째형이었던 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와 같은 불법적 행불 신청이 조모와 부친의 묘를 선산으로 압입리 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형제간의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곡성군 옥곡면 신산 부지내 해당 묘지는 지난 7월 곡성군에 가족묘로 허가 완료되어 있었으며 한 모 회장으로 부터 삼대 장손까지 세겨진 상석으로 보아 장자인 M건설사 한 모 회장의 일가(一家)묘로 유추된다.

결국 한 회장 일가(一家)만의 발복(發福)을 위한 이장으로 인한 형제간의 추태로 번진 재벌가의 추악스런 단면이 비춰진 것이다.

서은홍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박근혜·이명박 정부 수사 적폐청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폐청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댓글조작, 민간인·정치인 사찰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6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이 65.0%로, '정치보복'이라는 의견(26.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잘 모름'은 8.7%였다.

연령별로는 30대(86.9%), 20대(75.2%), 40대(73.0%), 50대(61.4%) 순으로 '적폐청산' 응답이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43.7%)에서는 '정치보복'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모든 지역에서 '적폐청산'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74.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70.1%) ▲경기·인천(65.7%) ▲대구·경북(65.1%) ▲대전·충청·세종(62.3%) ▲부산·경남·울산(57.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1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응답률은 6.6%였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 우리 결연 언제나
-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